

# 3·1, 4·19서 5·18, 6·10까지...민주올레길을 함께 걷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민주주의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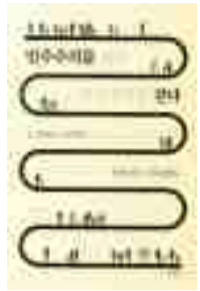
한중수 지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고전적 명제가 된 지 오래다. 그만큼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 험난하고 지난하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지난 9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이었다. 이날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자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졌으며 시민들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19년 3·1 만세시위 이후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과 희생이 지속됐다. 5·18, 4·19, 6·10 항쟁이 그러한 산물이다.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게 생각하며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많은 이들의 희생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민주올레’라는 말이 있다. 지난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다.

민주화와 관련된 역사적 현장을 함께 걸으며 그 날의 송고한 정신을 담아낸 책이 발간됐다. ‘라면의 재발견’,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의 저자 한중수가 펴낸 ‘민주주의를 걷다’는 3·1부터 6·1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을 담고 있다.

당초 ‘올레’의 원뜻은 ‘놀망, 쉬멍, 걸으멍’ 하면서 자연풍광을 즐기는 제주도 말을 일컫는다.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이 본래 바탕을 이룬다. 이 올레를 자켓대로 도심의 민주주의의 역사 현장을 걸으며 올레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 ‘민주올레’의 본질이다.

책에는 3·1민주올레, 4·19민주올레, 남산-남영동 민주올레, 부산 민주올레, 5·18이 나온다. 역사 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셈이다. 올레길을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니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한다.

5·18민주올레길은 전남대 정문으로부터 시작된다. 80년 당시 신군부 일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학생들은 김대중 석방, 전투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먼저 전남대 캠퍼스 안 박관현 열사 추모비가 소

개된다. 광주시민과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주도하면서 탁월한 연설로 시민들을 감동시켰던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어 광주시민과 계엄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광주역 전투’ 현장, 옛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일대 등이 차례로 소개된다.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최초 발표를 했던 장소로 알려진 동구 계림동 250-91번지, 당시 시민을 폭도로 몰았던 광주 MBC가 있던 옛터, 대책을 논의한 항쟁의 산실 녹두서점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광주의 전설 광천동 들불야학을 비롯해 광주 YWCA 옛터, 항쟁의 거리 금남로, 그리고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인 전일빌딩245(옛 광주일보 사옥)도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공간이다.

사실 동시대를 살아도 정치적인 경험이나 강도에 따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말은 5·18이 ‘누군가에게는 역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억이자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민주올레길을 소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 공감하자는 몸짓일 터다. 흔적과의 미를 되새겨봄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자는 향후 과제도 제시한다. “시간까지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별도의 책으로 인천이나 성남, 수원, 대구, 마산, 원주 등 다른 도시들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문고·2만3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0년 5·18 당시 옛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 모인 수 만명의 광주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메신저

스티브 마틴·조지프 마크스 지음, 김윤재 옮김

기업들은 막대한 모델료의 유명인들을 출연시켜 제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고 뉴스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도의 권위를 담보한다. 인간이 처리해야 할 정보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의 영향력에 의존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메신저 프레임을 설명한 책 ‘메신저’는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찰한다. 경제칼럼니스트이자 ‘웃는 얼굴로 구워삶는 기술’의 저자 스티브 마틴과 행동심리학자 조지프 마크스가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에게 따르면 메신저는 크게 ‘하드 메신저’와 ‘소프트 메신저’로 나뉜다. 전자는 상대적인 우월함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구성원 간에 계급적 질서를 형성한다. 이 범주 메신저는 집단 내에서 더 큰 결정권을 부여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프레임 요소로 ‘사회경제적 지위’, ‘역량’, ‘지배력’, ‘매력’이 있다.

후자의 네 가지 프레임은 ‘은화함’, ‘취약성’, ‘신뢰성’, ‘카리스마’이다.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때 보통 학자나 CEO의 의견만을 구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나 신뢰하는 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 협력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메신저 영향력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프레임에 취사선택해 행동으로 옮길 때 효과가 발휘된다. 즉 자격 중심의 딱딱한 메신저가 선호되는 상황과 유대감 중심의 부드러운 메신저가 승자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북스·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상 끝에서 춤추다

어슐러 K. 르 끈 지음, 이수현 옮김

휴고 상, 네블러 상, 로커스 상 등 최고 권위 장르문학상을 여러 차례 석권하는 등 미국 문단에 끼친 공로로 전미 도서상 메달을 수여받았던 어슐러 K. 르 끈. 그는 지난 2003년에는 미국 SF 판타지 작가협회의 그랜드마스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설 뿐 아니라 시, 평론, 수필, 동화, 각본, 번역, 편집과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2018년 포클랜드 자택에서 영면했다.

이번에 그의 책 ‘세상 끝에서 춤추다’가 발간됐다. 서평을 제외한 각각의 글은 주제에 따라 여성, 세계, 문학, 여행을 나타내는 네 가지 기호가 붙어 있다. 서문에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드러나 있다. “특정 경향에 동조하지 않는 독자들이 피해 가는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무엇이든 주는 대로 받으려는 독자라면 아무래도 상관 없을 것”이라는 표현에선 윗트가 느껴진다.

책에는 유토피아, 여행기, 문학의 검열 문제, ‘스타워즈’ 감성 등 삶의 단면에서부터 SF 경계에 이르는 다양한 소재가 망라돼 있어 작가의 지적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여성 교육의 산실이었던 밀스컬리지 졸업생들을 위해 했던 ‘원순잡이’를 위한 졸업식 연설’은 역대 미국 명사들의 명연설을 모은 사이트 아메리칸 레토릭에서 최고의 연설 100선에 꼽히기도 했다.

‘비행공포’의 작가 에리카 종은 “르 끈의 너그고 장난기 넘치는 마음속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리고 충실하고 우아한 산문을 읽는 것 역시 기쁜 일이다”라고 찬탄했다. <황금가지·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정지우 지음

“백지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막막함에 몸부림치다가도, 손을 키보드에 올려놓고, 첫 문장을 적어내고, 또 다음 문장을 적어 내다보면...” (본문 중)

작가이자 변호사인 정지우의 에세이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가 ‘밀리의 서재’와 ‘문예출판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밀리 오리지널 에디션’으로 출간됐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행복이 거기 있다, 한 점 의심도 없이’, ‘정춘인문학’ 등을 펴냈으며 평론가로도 활동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글쓰기’를 둘러싼 모든 영역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껏 해온 글쓰기의 거의 모든 지평에 관해” 썼다고 밝힌 저자의 말대로 책은 글과 글쓰기 자체에 대한 고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조언 뿐 아니라 불안하고 막막했던 습작성질, 글을 써서 먹고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작가의 삶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글쓰기 트렌드와 책의 미래, 작가로서의 기쁨과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저자는 제일 먼저 ‘글쓰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만한 강연이나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글쓰기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몸’으로 익히는 습관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한 해에 글을 쓰지 않는 날이 열흘이 넘지 않는다는 그는 ‘글 쓰는 몸’을 만들어온 세월동안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내어놓는다.

또 어떤 대단한 경험, 거창한 생각, 깊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놓여있는 삶, 어느 평범한 일상을 자기만의 시선과 색깔이 담긴 한 편의 글로 풀어내는 방법을 펼쳐놓는다. <문예출판사·1만4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